



「아프리카의 에이즈 예상 3대 시나리오」 지금의 행동이 미래를 결정

번역 및 정리_서경훈 · 본회 교육연수과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은 아프리카의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창궐에 즉각 대처하지 않을 경우 2025년까지 8천만 명 이상이 숨질 것이라고 최근 전망했다.

UNAIDS는 지난 3월 2025년 아프리카의 에이즈 3대 시나리오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어떤 정책과 조치를 시행하는가에 따라서 2025년 아프리카는 3개의 다른 미래를 맞을 수 있으며 4천3백만 명의 목숨이 좌지우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천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피터 피오트 UNAIDS 사무 총장은 보고서 발표장에서 “이 시나리오는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또 “시나

리오는 다가오는 20년 동안 아프리카 국가들이 선택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고 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에이즈는 사회와 경제를 망칠 수 있는 심각한 비극이라고 인식하고 대처한다면 수백만 건의 신규 감염을 막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보고서 작성 및 시나리오 구성 작업에는 아프리카인을 포함하여 전문가와 학자 150여 명이 참여했다. UNAIDS는 2003년 2월부터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아프리카연합,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유엔개발계획, 로열 더치 쉘의 지원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기르마 월데기오르기스 에티오피아 대통령은 “3대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미래를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에이즈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대 시나리오는 앞으로 20년간 무엇이 아프리카와 전세계의 에이즈에 대한 대응을 결정하는 것이며 다음 세대가 맞이할 미래는 어떤 것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연구됐다. 또한 에이즈는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의 문제로서 계속해서 아프리카의 운명에 영향을 많이 끼칠 것이며 지금 내리는 결정이 다가올 미래를 형성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출발했다.

3대 시나리오

보고서의 3대 시나리오는 ‘Tough choices : Africa takes a stand(어려운 선택)’, ‘Traps and legacies : The whirlpool(함정과 유산)’과 ‘Times of transition : Africa overcomes(변화의 시대)’이다.

보고서의 3대 시나리오는 ‘Tough choices: Africa takes a stand(어려운 선택)’, ‘Traps and legacies: The whirlpool(함정과 유산)’과 ‘Times of transition: Africa overcomes(변화의 시대)’이다.

Tough choices는 아프리카의 지도층들이 단기적으로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에이즈 확산을 줄이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정부와 공공사회가 적은 자원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미래발전과 저개발을 개선하기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정부지도자들이 현재의 부족한 예산만으로 최선의 효과를 내기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Tough choices에서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치료와 투약은 초기 5%에서 2025년에는 3분1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의 약품 생산능력과 보건제도에 대한 투자와 훈련이 늘어나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의 생산량은 서서히 증가할 것이다. 또한 예방교육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에이즈로 인한 사망률이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20년 동안 **Traps and legacies**에 비해 2천4백만 명의 사람들이 감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즈로 인해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2025년에는 그 숫자가 거의 2배가 될 것이다.

Traps and legacies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며 전세계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맞을 수 있는 미래이다. 아프리카의 지도층이 지원에 나서지 않고 현실에 안주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맞게 될 결과이다.

에이즈는 아프리카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고갈시키고 사회구조를 약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 결과 에이즈는 아프리카 국가의 가난과 저개발, 불평등을 가중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주변국화 시킬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2025년 아프리카의 성인 에이즈 감염률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

으나 5%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 평균 수명은 줄고, HIV에 감염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에는 에이즈로 인한 사망률이 지금보다 네 배 이상 증가하여 조부모가 없는 가정의 늘며 부모마저 사망해 고아가 되는 아이들이 많아 생길 것이다.

하지만 에이즈예방과 치료에 대한 투자는 낙후된 경제·사회적 여건 때문에 효과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에이즈 치료와 투약은 전체 중 20%정도만 혜택을 받을 것이며, 이를 늘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지만 낙후된 사회 구조와 급등하는 비용 때문에 치료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Times of transition에서 전세계와 아프리카 정부는 에이즈를 이례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례적인 비극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가장 이상적인 대응과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와 전세계는 보건, 경제 개발, 무역, 안전보장 면에서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다. 외부 지원은 꾸준히 늘어나며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도 늘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2025년까지 외부지원은 2배로 늘고, 에이즈 환자에 대한 치료와 투약은 전체 감염인의 70%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50%나 되는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염인의 숫자가 2008년에 비해 2025년에는 절반으로 줄 것으로 보인다.

Traps and legacies에 비해 4천3백만 명의 사람들을 감염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속된 예방과 치료 노력에 힘입어 에이즈 예방과 퇴치에 필요한 예산이 2019년을 기점으로 줄기 시작하게 된다.

시나리오 선택에 따라 미래 달려져

결론적으로 Traps and legacies는 에이즈에 대해 아프리카 내부정책이 적절하지 않고 국제 지원이 줄거나 중단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Tough choices는 내부 정책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만 국제 지원이 늘지 않은 경우이다. Times of transition는 더욱 효과적인 내부정책과, 늘어나고 높은 수준의 국제 지원이 가능할 경우이다.

잠비아 전 대통령인 케네스 카운다 박사는 “에이즈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력뿐만 아니라 균전한 보건제도와 경제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에이즈는 오랜 기간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몇 번의 정권에 걸쳐 꾸준하고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미래의 자산이 어린이에게 투자되고 그들의 부모를 감염되지 않게 하고, 살아있게 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3대 시나리오는 에이즈는 오래 지속될 문제이며 최악의 결과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 존재하고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 3대 시나리오

	어려운 선택	힘정과 유산	변화의 시대
총예산	980억 달러	700억 달러	1950억 달러
신규감염인	6천5백만 명	8천9백만 명	4천6백만 명
1인당 추가 비용	800달러	0	1160달러

피터 피오트 UNAIDS 사무총장은 에이즈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행동이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나?

이 시나리오들은 아프리카의 에이즈 창궐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와 공통된 대응을 크게 향상시킨다. 시나리오는 냉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한 희망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보통 이상의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미래는 우리가 현재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시나리오는 아프리카의 에이즈가 노예제도 이후의 유일무이한 재앙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에이즈는 그 규모가 대단히 크며, 매우 복잡하며, 모든 세대에 걸쳐 관여되어 있으며, 아프리카 미래의 큰 빛이다. 아프리카의 미래 상당부분은 지금 이 재앙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가에 달려있다. 이 재앙은 그 가속화와 장기화 그리고 개인과 국가에 대한 영향에 있어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것이다.

시나리오는 희망을 주고 있나?

이 시나리오는 지금 현실이 희망이 없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지금의 노력과 특히 아프리카 국가 간의 연합된 힘을 기른다면 에이즈 확산은 개선될 수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 시나리오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하고 싶다.

대응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시나리오는 단기 해결방안과 장기 대응전략 같은 노력들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

리는 위기가 발생하거나 바이러스가 나타난 후에나 조치를 취했다. 이제 우리는 사전행동을 취해야 하며 전략적이어야 한다. 단기 해결방안은 현재 감염된 사람, 그 가족 그리고 나아가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예방에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해져 장기적으로는 젊은 세대들을 감염되지 않게 할 수 있다.

시나리오는 아프리카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원인들이 에이즈 창궐의 근본이 되고 있다고 한다. 3대 시나리오에서 성차별은 강력한 원인이며, 가난과 빈부격차 그리고 세계에서 아프리카의 소외도 원인이다. 시나리오에 우리는 에이즈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의 저개발을 해소해야만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아프리카 국가별로 대응이 다르기 때문에 예상하기 어렵다. 아프리카의 국가마다 다른 시나리오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각 국가에서 이 시나리오가 정책을 세우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었으면 한다.

진척은 이뤄지고 있나?

최근 몇 년 전과 비교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빠른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에이즈가 중요한 개발전략의 요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에이즈에 대한 대응이 단편적이라면 수천만 명의 희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문명이 멸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강력한 선택을 해야 하며 오래 기다릴수록 선택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자료 : UNAIDS)



피터 피오트
UNAIDS 사무총장